

의안번호	제 14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7월 23일 (제 292 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연월일	2010년 7월 21일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

의안 번호	14
----------	----

제안연월일 : 2010년 7월 21일  
제안자 :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 제안 이유

-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가 한나라당 3대 공약과제 중 과학 기술분야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고자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조성을 제시하였고, 대통령 당선 후 2008년 7월 우리도 방문 시 도정 보고 중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해야 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
- 그러나 지난 7월 초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입지선정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발표 함.
- 이에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논란과 관련해 충청권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

### 붙임 : 건의안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위원장님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와 155만 충북 도민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지방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속히 조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2009년부터 7년간 3조 5,487억원을 투입하여 330만 평방미터(100만평) 규모로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및 미래융합 기술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행복도시·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벨리로 육성하는 것으로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대통령 공약중 하나입니다.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도를 방문하였을 때도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에 해야 될 것이라고 하여 충청도민은 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논란 끝에 부결되자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역 등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은 세종시 수정안 이전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별개의 것이며, 충청권에 조성하여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에, 국토의 중심으로 교통인프라가 뛰어나고, 도시기반 계획이 완성돼 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연구시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음은 물론,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송·오창단지 연계 발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거점지로 적합한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대한 공약이행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조속한 결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환경 조성을 앞당기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 소모적인 지역간 경쟁, 갈등이 유발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미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약속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재검토 의견이 나옴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서로 유치경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국론분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최근의 실정을 감안하여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당초대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하며 충청도민 모두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2010년 7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